

|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북아시아지역과의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도야마현)

1 목적

일본에서는 극동지방을 비롯한 대륙에서부터 건너오는 겨울새와 방조의 경로 등을 밝히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새의 번식지 및 이동 코스라고 생각되고 있는 극동지역에서는 일본과 대륙을 왕래하는 철새 경로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를 위해 극동지역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철새의 이동 경로, 수명, 번식개시 연령 등을 밝히기 위해 표식조사를 실시한다.

2 사업 내용

(1) 실시 시기

철새의 이동시기인 봄 및 가을

(2) 실시 장소

참가 지자체의 철새 중계지

(3) 실시 방법

ㄱ. 조사 주체

참가 지자체가 민간 단체에게 업무 위탁.

(민간단체는 기업 및 기타 단체의 조성도 언어 사업을 실시)

ㄴ. 조사 방법 등

(조사 방법)

- 새 그물로 철새를 포획하여 계측하고 표식(족쇄/링)을 달아 방조한다.

(조사 보고서의 작성)

- 공통된 기록양식으로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다.

(4) 참가 지자체

도야마현, 러시아 연해주지방

3 지난해 사업 결과

(1) 참가 지자체

도야마현, 러시아 연해주지방

(2) 실시 결과

환동해 환경 협력 일환으로서 철새에 관한 공동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연해주지방이 중심이 되어 조사한 담당자를 2006년 4월 19일(수)부터 24일(수)까지 6일간, 도야마현의 「후추 조류 관측 스테이션」에 초대하여 조사대상 조류의 개체식별용 표식(족쇄/링)을 달아주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조사 방법을 연수하고 연해주지방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토·협의했다.

또, 러시아 연해주지방의 중,고등학생, 아동에코클럽을 수용해, 도야마현 주니어내츄럴 리스트와의 의견 교환과 비오톱(야생생물생식공간) 만들기 등을 통해, 양국의 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깊이했다.

1998년 추기(秋期)이래, 연해주지방에서 실시한 조사 실적은 62,000마리의 소조류 등에 표식 조사 (밴딩:족쇄/링) 를 할 수 있었다. 포획 방조한 조류의 공통 종(種)은 가시라 타카(참새과), 족새, 멧새 등 약120종 이었다.

후츄 조류 관측스테이션에서 실습하는 모습

